

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

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
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



육성사업 체계

2013년 삼성전자가 10년간 1조5천억원을 조성
국가 미래기술을 육성하는 공익사업 착수

도전과 창의를 3大 프로그램 추진

▶ 과학기술의 근간

기초과학

(5천억원)

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

▶ 산업 패러다임 주도

소재

(5천억원)

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

▶ 큰 부가가치 창출

ICT

(5천억원)

▶ 과제공모

□ 자유공모 (재단, 센터 공통)

- 연구책임자가 연구주제, 기간, 예산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
- 년 2회 상하반기(6月, 12月) 과제 접수

□ 지정테마 (센터만 운영)

-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술분야/육성분야를 지정하여 과제 공모 (년1회, 2월 지정테마 RFP 발표, 4월 과제 접수)
- 테마 주제는 학계 및 산업계 의견 수렴하여 선정

'17年	'18年	'19年	'20年	'21年
-차세대 반도체 재료 및 소자 -Smart Machine을 위한Intelligence	-차세대 센서 Materials&Devices -차세대 통신/네트웍 및 융복합 기술	-Disruptive 반도체 소자/소재 -차세대 디스플레이 -Consumer 로봇 -차세대 컴퓨팅 -진단/헬스케어	-Disruptive 반도체 기술 -차세대 디스플레이 -6G Communication -차세대 실감 미디어 -양자 컴퓨팅 -세포치료제	-Disruptive 반도체 -차세대 암호 시스템 -차세대 Display -Robot -Beyond 5G/6G -Advanced AI

▶ 선정 과제 현황: 634건/8,125億 선정

구분		기초과학	소재	ICT	소계
자유 공모	'13년~'19년	179건	122건	143건	444건
	'20년	26건	15건	15건	56건
지정 테마	'14년~'19년	-	45건	34건	79건
	'20년	-	9건	3건	12건
신규 선정		205건	191건	194건	591건
후속지원		11건	15건	18건	44건
합계		216件/ 3,198億	206件/ 2,770億	212件/ 2,157億	634件/8,125億

- PI를 포함한 연구인력 11,385명 참여(교수 1,413명, 포닥/석박사 9,972명)
- 연구책임자는 최연소 27歲 ~ 63歲 까지 다양하게 분포, 신진연구자 비율 약 50%
- 연구수행 기관 75(대학 53, 공공연구소 16, 기업연구소 6)

▶ 사업화 및 상용화 지원

□ 연구책임자들이 연구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
삼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다각적인 지원



▶ 학계 Feed back

- 과제선정 과정이 매우 신선했다. (전문성, 객관성 등)
- 새로운 시도, 하고 싶은 연구에 집중할 수가 있다.
- 과제에 선정이 되면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다.
(특히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선 가장 받고 싶은 Fund 이다.)
- 학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.
- 특허지원, R&D 교류회 등 차별화된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.

Challenging Limits, Creating Value

창조적인 발상과 열정적인 연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.
무한 탐구와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한
독창적인 프론티어 연구의 세계를 열어갑니다.

